

2025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

-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(2026-2030) 자산군별 목표비중 결정 -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이하 기금위)는 5월 29일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‘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’를 개최하여, ‘2026년~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(안)’*등 주요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중기자산배분은 기금의 수익성·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 운용전략으로, 기금위는 향후 5년 간의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의결

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%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하였으며,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,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.

2026~2030 중기자산배분(안)에 따르면,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*은 ▲주식 55% 내외 ▲채권 30% 내외 ▲대체투자 15% 내외이다.

*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「국민연금법」 제103조의2에 따라,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

이와함께,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* 등을 반영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(안)**을 심의·의결하였다.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(안)에 따르면, 연금보험료 및 여유자금 운용회수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84조 9194억 원, 연금급여지급을 포함한 총 지출은 53조 9484억 원이며,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30조 97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.

* 국내주식 14.4%, 해외주식 38.9%, 국내채권 23.7%, 해외채권 8.0%, 대체투자 15.0%

**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한편, 기금위는 「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(안)」도 심의·의결하였다.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의 내재화된 해외채권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채권의 직접운용을 확대하여 운용 수수료 절감 및 투자 효율을 제고하도록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기존 40%~80%에서 30%~80%로 조정하였다.

* '25년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은 약 42.8%
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해외 주요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관세 등 이슈로 글로벌 투자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, 면밀한 시장 분석과 신속한 대응 여하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은 기회가 될 수 있다”라며, 기금운용본부에 “국내·외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한 대응을 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또한, “연금개혁('25.4.2)에 따라 기금이 현행 56년에서 최대 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, 이러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기금위에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
<붙임>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

보건복지부 담당 부서	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	책임자	과 장	백진주 (044-202-3650)
		담당자	사무관	신현준 (044-202-365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개 요

- 일 시 : '25년 5월 29일(목) 14시
-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위원장(보건복지부 장관) 등 위원 12인

□ 안 건(의결 3건, 보고 2건)

구분	안 건 명
의결	2026~2030년 중기자산배분(안) * 대외 비공개
	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(안)
	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 개선(안)
보고	2025년도 제2차 회의록(요약본)
	2025년도 3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